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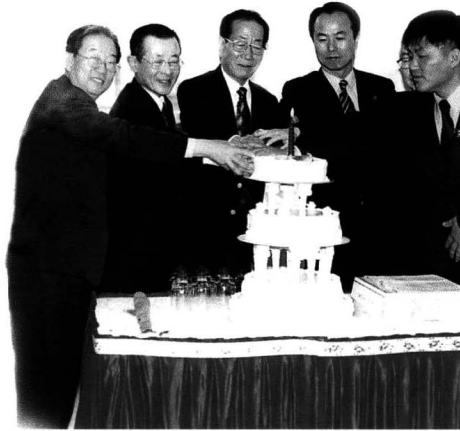
## 수원산업보건센타 신사옥 개소식

3월 5일은 100년 기상 관측아래 3월 중 하루 적설량 최고치, 49cm를 기록한 역사적인 날이다. 또한, 세상이 봄눈 속에 파묻힌 그 날은 우리 협회에게 또 다른 의미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3월 5일은 바로 수원센타가 '우만동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인계동 시대'를 여는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로 소중한 분들을 다 참석할 수 없게 된 아쉬움은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신부의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눈을 배경으로 수원센타 식구들이 환한 미소를 받으며 새롭게 단장한 수원센타에 들어섰다.

오후 4시, 수원센타 사무국장인 김재웅 국장의 사회로 개소식을 시작하였다. 국민의례를 처음 순서로 "92년부터 시작해 11년 동안 셋방살이를 끝내고 이렇게 새집에 들어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덕분이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상택 지부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오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의미 있는 과거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듯 '92년 수원센타의 개소



부터 오늘까지 꺾꺾 눌러쓰듯 연혁을 짚어보는 경과보고가 있었다. 경과보고가 있는 동안 안내하기 위해 서 있는 몇몇 수원센터 직원은 우등상을 받는 학생처럼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어서 내부 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여되는 공로패 수여식과 격려사가 있었다. 참석하신 내빈을 향해 가볍게 목례한 후 윤임중 회장은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수원센터의 개소식에 맞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이 100년만의 최고의 폭설이라니 수원센터의 발전에 좋은 조짐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은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걸 수원센터 직원들은 명심하고 오늘의 기쁨은 호주머니 깊숙이 간직하듯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자기개발에 계속 정진하여 ‘산업보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오늘이 있게 해 준 근로자와 기업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빈들을 향해 “수원센터 잘 봐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계속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백낙문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수원센터가 새 사옥으로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무 환경이 좋아진 만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비해 근로자에게 좀더 나은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근로자와 기업에게 고마움을 돌리는 마음에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자리를 옮겨 5층 현관에서 테이프커팅식을 가졌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수원센터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협회 임원과 내빈들이 나란히 서서 동시에 테이프를 자르는 테이프커팅식, 이 커팅식으로 만약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수원센터의 우환(憂患)을 단번에 잘라 버린 효과가 있기를 성심으로 빌어본다.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6층 만찬장에 올라서 수원센터의 앞날을 기원하는 건배와 고사떡을 나누듯 뷔페로 식사를 했다. 손님들이 다 먹을 동안 기다렸다 식사를 한 수원센터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과 웃을 수 있는 환한 앞날을 기원해 본다. **윤임중**

**수원센터**  
2004. 3. 5 (월)



윤임중 회장

**수원센터**  
04. 3. 5 (월)



이상택 수원지부장

**수원센터**  
04. 3. 5 (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백낙문 원장



수원센터 김재웅 사무국장

